

대학 교양중국어 학습자 변인에 따른 교육만족도 연구*

尹淳一**

<목 차>

1. 서론
2. 조사 방법
3. 조사 결과
4. 결과 분석
5. 결론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국제화 경향과 교육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하여 외국어 영역에서의 원어수업에 대한 수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줄곧 증가의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국어 원어수업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은 중국어 입문 과정으로 '교양중국어초급'과 '교양중국어중급' 두 과목을 1년 과정으로 매 학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강좌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 원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이다. 최근 10년간 매 학기 최소 10개

* 본고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016학년도 제1학기 교강사 워크샵"에서 발표한 강연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분반 이상이 개설되고 있는 본 대학 제2외국어 강좌 가운데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인기 강좌이다. 해당 강좌는 중국어 원어강의라는 측면에서 다른 대학의 유사 강좌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문 혹은 초급과정에서 원어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기본 설계에는 학생들의 외국어 이해력 부족이라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매 학기 원어수업의 난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대개 교재의 구성이나 팀티칭의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심지어 일부는 원어로 진행되는 수업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입학 전형의 다변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어권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들이 대거 수강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서 기존의 학생들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교수자들은 수업의 기본적인 설계에 다소간의 조정을 피할 수 없었으며, 학습자 간에도 이질감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효율적인 학습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자주 보이지 않던 최근의 현상으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그 동안 자주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귀납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질적으로 다양화된 학습자의 구체적인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이다.²⁾ 분석의 과정에서 학습자를 이질적인 3개 집단으로 세분

1) 교양중국어 과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 증가의 추세에 있다. 대표적으로 류창교(1998), 장춘석(2002), 정진강(2006), 조득창(2006), 김선아(2014), 강찬구(2016), 손정애·황영희(2016) 등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 실태와 이에 관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어강의 대상으로 학습자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2) 학습자 변인에 따르는 학습태도 및 학습 효율성과 관련하여 김은희(2010)는 교양중국어 수업에서 중국 체류 경험이나 고교 재학시 중국어 과목 이수와 같은 사전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구체적인 학습동기와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신경선(2012)는 이공계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현아 외(2015)

하고 이를 변인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수강생의 다양화에 대응되는 분석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이에 상응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교과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유효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조사 방법

2.1 설문의 기본 설계

전술한 바와 같은 본 연구는 교양중국어 강좌의 학습자가 체감하는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교과목의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교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학습자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매우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수강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교양중국어 강좌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원어강의와 팀티칭 운영의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의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다.

2.2 설문의 대상과 내용

본 연구는 우선 서울지역에 소재한 K 대학의 2015년도 2학기 교양중국어

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의 교재와 수업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주제, 난이도와 언어 측면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유의미한 특징을 도출하였다. 한희창(2015)는 공학 계열 학습자와 인문사회계열 학업 성취도, 학습 환경과 학습 동기와 성취도의 상관관계, 수업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강좌는 주당 3학점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학기 총 16주 진행되는 중국어 원어강의이다. 수강 인원은 대체로 각 분반별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수준을 유지한다. 2015년도 2학기의 경우, 총 10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중 2개 강좌가 초급과정이고 나머지 8개 강좌가 중급과정이다. 본 연구는 중급과정 8개 분반 가운데 4개 분반 총 88명의 학생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는 해당 학기 중급과정 전체 수강인원 201명의 43.8%에 해당되는 인원이며, 그 중 전공자는 42명, 비전공자는 46명이다.³⁾

설문은 2015년 12월 8일에서 12일 사이 수업이 진행되는 각각의 강의실에서 담당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 대다수는 이미 입문 단계인 초급과정을 수강한 상태이며, 설문이 중급과정의 학기말 단계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양중국어 전 과정의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문지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객관식 문항이 24개, 주관식 문항이 2개이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가장 현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응답을 모두 배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래의 여섯 방면으로 대별된다.

1. 기본 정보 [학습/체류기간, 자기평가, 난이도]
2. 수강 목적 [수강목적, 중시하는 학습 영역]
3. 과정 설계 [인원 제한, 평가방식]
4. 원어 강의 [효용성, 사용비율]
5. 교재 [선호도, 문제점]
6. 팀티칭 [선호도, 문제점]

3) 본 설문에 참여한 4개 분반 가운데 2개 분반 42명은 모두 전공자이다. 이들은 사전 상담을 통해 대부분 중국어권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2개 분반 46명은 전공자와 비전공자 그리고 중국어권 국가 체류 경험자와 무경험자가 모두 혼재되어 있다.

3. 조사 결과

3.1 자기 평가와 난이도

필자는 먼저 학생들에게 전공 여부, 학습 기간, 중국어권 국가 체류 기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총 4개의 분반 가운데 2개 분반은 42명 정원이 중국어권 국가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인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 분반의 46명은 대다수가 비전공자이며, 그 중 체류 경험이 없거나 5년 이하인 학생이 33명, 체류 경험이 5년 이상 체류 경험자는 13명이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모든 학생을 중국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5년 이하인 전공자(47.7%, 이하 '전공자'로 칭함), 중국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5년 이하인 비전공자(40.9%, '비전공자'로 칭함), 중국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5년 이상인 전공 및 비전공자(14.8%, 이하 '장기체류자'로 칭함)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변인으로 하여 후속 문항의 결과를 교차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에게 중국어 실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요구하였다. 전공자(90.5%)와 비전공자(87.9%)의 대다수는 스스로의 실력을 중간 혹은 중간 이하로 평가한 반면, 장기체류자(92.3%)는 대부분 자신의 실력을 중간 이상 혹은 아주 잘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1> 문항3: 자기에 대한 평가

	매우 잘 함	중간 이상	중간 정도	중간 이하
전공자	4.8%	4.8%	47.6%	42.9%
비전공자	0.0%	12.1%	42.4%	45.5%
장기체류자	23.1%	69.2%	7.7%	0.0%
합계	5.7%	17.0%	39.8%	37.5%

스스로 체감하는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전 집단에 걸쳐

반수 이상(61.4%)이 적당한 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쉽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극소수(2.3%)에 그쳤다. 특이할 사항은 비전공자 집단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원의 비율(42.4%)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희망하는 난이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였는데, 반수 이상인 60.2%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고 현재보다 어렵게 조정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4%에 그쳤다. 수업 난이도를 현재보다 어렵게 조정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비전공자(9.1%) 집단보다 전공자(23.5%)와 장기체류자(38.5%)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2> 문항4: 스스로 체감하는 난이도

	쉬움	적당함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공자	0.0%	66.7%	33.3%	0.0%
비전공자	0.0%	51.5%	42.4%	6.1%
장기체류자	15.4%	69.2%	15.4%	0.0%
합계	2.3%	61.4%	34.1%	2.3%

<표3> 문항5: 향후 희망하는 난이도

	훨씬 어렵게 조정	조금 어렵게 조정	현재의 수준 유지	현재보다 쉽게 조정
전공자	0.0%	23.8%	66.7%	9.5%
비전공자	0.0%	9.1%	57.6%	33.3%
장기체류자	7.7%	30.8%	46.2%	15.4%
합계	1.1%	19.3%	60.2%	19.3%

3.2 수강 목적과 관심 분야

교양외국어 과목으로 중국어를 선택한 목적을 질문하였다. 46.6%로 학생이 취업과 진로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⁴⁾. 전공자의 경우

4) 장춘석(2006)은 교양중국어 수강자는 프랑스어와 같은 다른 외국어 수강자에 비해 전공

61.9%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전공자는 취업과 진로의 이유(36.4%)와 중국어 실력 향상(33.3%) 두 항목이 주된 이유였다. 반면 장기체류자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30.8%)과 같은 비실용적 목적과 부담 없는 학점 취득(30.8%)과 같은 소극적 목적으로 중국어를 선택하였다.

<표4> 문항7: 중국어 선택의 목적

	언어, 문화에 대한 관심	중국어 실력의 향상	취업, 진로의 필요	부담 없는 학점 취득
전공자	14.3%	0.0%	61.9%	4.8%
비전공자	15.2%	33.3%	36.4%	12.1%
장기체류자	30.8%	15.4%	23.1%	30.8%
합계	17.0%	14.8%	46.6%	11.4%

다음으로 대학의 제2외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영역과 현재 수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동일한 항목을 제시하고 질문하였다. 대다수인 71.6%의 학생이 실전 회화 능력의 제고를 선택하였으며, 반수 이상인 58.0%의 학생이 이 항목을 현재 수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도 선택하였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장기체류자 집단에서 공인시험의 대비 부분의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38.5%로 다소 높다는 점이다.

<표5> 문항8: 본인이 중시하는 영역

	회화	독해, 작문	문법, 어휘	발음	공인시험 대비
전공자	76.2%	14.3%	4.8%	4.8%	0.0%
비전공자	69.7%	21.2%	0.0%	6.1%	3.0%
장기체류자	61.5%	15.4%	7.7%	15.4%	0.0%
합계	71.6%	17.0%	3.4%	6.8%	1.1%

www.kci.go.kr

<표6> 문항9: 현재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영역

	회화	독해, 작문	문법, 어휘	발음	공인시험 대비
전공자	52.4%	14.3%	4.8%	19.0%	9.5%
비전공자	69.7%	15.2%	3.0%	6.1%	6.1%
장기체류자	46.2%	0.0%	7.7%	7.7%	38.5%
합계	58.0%	12.5%	4.5%	12.5%	12.5%

한편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과제나 평가방식으로 단어암기(17.0%), 본문암송(34.1%), 쓰기 연습(30.7%)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과제를 선택하였다. 지정 주제의 발표, 상황극, 인터뷰와 같은 참여형 과제, 시청각 자료의 활용 연습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과제와 활동은 실제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학습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표7> 문항25: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제, 연습, 평가

	단어 암기	문장 암송	쓰기 과제	주제 발표	참여형 과제	시청각 자료 활용
전공자	14.3%	42.9%	23.8%	0.0%	14.3%	4.8%
비전공자	18.2%	33.3%	39.4%	0.0%	6.1%	3.0%
장기체류자	23.1%	7.7%	30.8%	7.7%	7.7%	23.1%
합계	17.0%	34.1%	30.7%	1.1%	10.2%	6.8%

3.3 과정 설계와 평가 방식

해당 대학은 2014년 2학기부터 제2외국어의 폐강 기준을 10명에서 2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수강인원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전공자의 71.4%, 비전공자의 66.7%가 20명 이내의

수업을 희망하였다. 특이할 사항은 장기체류자들은 다른 집단과 상반되게 대다수인 72.9%가 '20명 이상'의 수업을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표8> 문항6: 수강 인원의 제한에 대한 선호도

	10명 이내	10명~15명	16명~20명	20명 이상
전공자	0.0%	38.1%	33.3%	28.6%
비전공자	6.1%	24.2%	36.4%	33.3%
장기체류자	0.0%	0.0%	23.1%	76.9%
합계	2.3%	27.3%	33.0%	37.5%

해당 대학의 제2외국어 강좌는 2014년도부터 절대평가의 평가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학생뿐 아니라 교수자들도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점 인플레이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비교적 유연한 형태의 상대평가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사전 학습 정도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수강생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호하는 수업운영 및 평가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사전에 실력별로 분반을 하여 원천적으로 학급 내 수준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하고, 반 내에서는 일원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42.0%로 가장 많았다. 전공자의 경우 학급 내 학생 수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다원화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42.9%로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장기체류자의 경우 수준별 분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3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9> 문항10: 수준별 분반 및 평가방식에 대한 선호도

	학급 내 단일한 평가	학급 내 수준별 강의	수준별 분반 개설	기타
전공자	14.3%	42.9%	28.6%	14.3%
비전공자	6.1%	15.2%	57.6%	21.2%
장기체류자	30.8%	15.4%	46.2%	7.7%
합계	13.6%	28.4%	42.0%	15.9%

3.4 원어 강의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강좌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원어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수자가 각종 필요에 의해 한국어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4개의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먼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어-한국어 사용비율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응답한 학생 대부분인 64.8%가 중국어 60%-한국어40% 혹은 중국어 40%-한국어60%를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대략 50:50으로 수렴하는 비율의 중·한 혼용의 수업을 희망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장기체류자의 경우 중국어85%-한국어15%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3.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10> 문항11: 중·한 혼용 비율에 대한 선호도

	중85%, 한15%	중15%, 한85%	중60%, 한40%	중40%, 한60%	중50%, 한50%	중100 %
전공자	4.8%	9.5%	33.3%	38.1%	14.3%	0.0%
비전공자	6.1%	15.2%	33.3%	27.3%	18.2%	0.0%
장기체류자	23.1%	0.0%	38.5%	15.4%	23.1%	0.0%
합계	8.0%	10.2%	34.1%	30.7%	17.0%	0.0%

다음으로 원어강의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65.9%의 학생들은 원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즉, 원어강의를 부정적

으로 생각한 학생도 34.1%로 적지 않았다. 특히, 비전공자 그룹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9.4%로 높게 나타났다.

<표11> 문항12: 원어 강의의 효율성

	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시간낭비의 측면이 있다.	학습에 방해가 된다.
전공자	19.0%	52.4%	28.6%	0.0%
비전공자	12.1%	48.5%	39.4%	0.0%
장기체류자	30.8%	30.8%	23.1%	15.4%
합계	18.2%	47.7%	31.8%	2.3%

한국어 설명이 중국어 설명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을 6개의 항목 가운데에서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학생들은 모든 집단에서 아주 높은 비율(70.5%)로 문법/어휘의 설명 영역을 선택하였다. 반대로 중국어 설명이 한국어 설명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만 문법/어휘의 설명 영역을 선택한 학생이 5.7%로 가장 낮았다.

<표12> 문항13: 한국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

	단어	본문	문법/어휘	응용 및 연습 문제	종합 요점 정리	중국 문화 소개
전공자	0.0%	14.3%	76.2%	0.0%	9.5%	0.0%
비전공자	3.0%	24.2%	66.7%	6.1%	0.0%	0.0%
장기체류자	15.4%	0.0%	61.5%	15.4%	7.7%	0.0%
합계	3.4%	15.9%	70.5%	4.5%	5.7%	0.0%

<표13> 문항14: 중국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

	단어	본문	문법/어휘	응용 및 연습 문제	종합 요점 정리	중국 문화 소개
전공자	19.0%	19.0%	4.8%	23.8%	28.6%	4.8%
비전공자	9.1%	27.3%	3.0%	12.1%	15.2%	33.3%
장기체류자	30.8%	15.4%	15.4%	15.4%	15.4%	7.7%
합계	17.0%	21.6%	5.7%	18.2%	21.6%	15.9%

3.5 교재의 적절성

해당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1년 과정의 교양중국어 학과목의 주교재로 지정된 교재는 2014년도에 개정된 《새내기중국어(개정2판)》(이하 《새내기》)이다. 이 교재는 해당 대학 교양중국어 강좌의 운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재이다. 개정판 교재의 내용과 구성이 얼마나 학습에 적합한지 학생들에게 ‘예/아니오’ 형식의 질문을 5개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아래의 질문들은 《새내기》라는 교재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각 문항에 대하여 집단별로 보이는 상이한 경향성은 다른 강좌의 운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새내기》는 전체적으로 여행, 쇼핑, 교통 등과 같이 매 과가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적으로 문화 관련 내용을 다루는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 교수자들이 관련 내용의 교학에 있어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새내기》에는 매 과의 ‘注釋’ 부분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문법 및 어휘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練習’의 구성이 단조로워 훈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한다는 점 등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이면에는 나름의 합리성을 내재하고 있다. 문화, 문법, 어휘 설명 부분의 분량 축소는 회화와 응용 연습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으

며, 난이도의 급진적인 상승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화 관련 내용의 수록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교수자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88.6%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비전공자의 경우 단 한 명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나마 가장 불만을 많이 제기한 집단은 전공자 집단으로 19.0%의 학생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문법 및 어휘 설명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44.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전공자의 경우 절반 이상인 61.9%의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장기체류자는 15.4%로 불만이 적은 편이었다. 연습문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37.9%의 학생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전공자의 경우 42.9%로 다소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개정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설명의 오류, 오타자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83.7%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전공자의 경우 23.8%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14> 문항15: 문화 항목

	예	아니오
전공자	81.0%	19.0%
비전공자	100.0%	0.0%
장기체류자	84.6%	15.4%
합계	88.6%	11.4%

<표15> 문항16:문법/어휘 설명

	예	아니오
전공자	38.1%	61.9%
비전공자	63.6%	36.4%
장기체류자	92.3%	7.7%
합계	55.7%	44.3%

<표16> 문항17: 난이도

	예	아니오
전공자	95.2%	4.8%
비전공자	63.6%	36.4%
장기체류자	84.6%	15.4%
합계	81.8%	18.2%

<표17> 문항18: 연습문제

	예	아니오
전공자	57.1%	42.9%
비전공자	65.6%	34.4%
장기체류자	69.2%	30.8%
합계	62.1%	37.9%

<표18> 문항19: 오류 및 이탈자

	예	아니오
전공자	95.2%	4.8%
비전공자	63.6%	36.4%
장기체류자	84.6%	15.4%
합계	81.8%	18.2%

3.6 팀티칭 운영

해당 학교의 교양중국어 강좌는 2인의 교수자가 하나의 분반을 담당하는 팀티칭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2인 교수자에서 1인은 문법, 어휘 위주의 강독을 담당하고 다른 1인은 듣기와 회화 등의 실습을 담당한다. 팀티칭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살려서 지도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자들 사이의 의견,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전 협의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4개의 질문을 하였다.

먼저 두 교수자의 수업이 내용상 불필요한 중복에 따른 시간적 낭비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30.7%의 학생이 불필요한 중복이 있었음을 선택하였다. 다만, 전공자의 경우 2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두 교수자의 설명이 다르거나 진도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했는지 물어봤는데, 각각 97.7%와 96.6%로 대다수는 설명 방식이나 진도에 있어 불편함은 없었다고 답하였다.

<표19> 문항21: 불필요한 반복

	예	아니오
전공자	23.8%	76.2%
비전공자	36.4%	63.6%
장기체류자	38.5%	61.5%
합계	30.7%	69.3%

<표20> 문항22: 설명의 차이

	예	아니오
전공자	0.0%	100.0%
비전공자	3.0%	97.0%
장기체류자	8.3%	91.7%
합계	2.3%	97.7%

<표21> 문항23: 진도의 차이

	예	아니오
전공자	0.0%	100.0%
비전공자	3.0%	97.0%
장기체류자	15.4%	84.6%
합계	3.4%	96.6%

마지막으로 향후 희망하는 팀티칭 형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6.4%가 팀티칭 유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전공자의 76.2%가 현행과 같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의 팀티칭을 선호한 반면, 비전공자의 경우 두 명의 교수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36.4%)이나 팀티칭을 취소하고 일원화된 수업(18.2%)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체류자의 경우 팀티칭 취소 및 일원화 수업을 선택한 비율이 3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22> 문항24: 향후 희망하는 팀티칭 운영 방안

	팀티칭 유지, 역할분담형	팀티칭 유지, 독립형	팀티칭 취소, 일원화
전공자	76.2%	19.0%	4.8%
비전공자	45.5%	36.4%	18.2%
장기체류자	53.8%	15.4%	30.8%
합계	61.4%	25.0%	13.6%

4. 결과 분석

필자는 3장에서 각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집단별로 분류하여 수치를 분석하였다. 문항에 따라 응답자들은 각 집단별로 매우 상이한 비율의 응답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포함된 집단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비율의 응답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각 집단에서 공동으로 보이는 특징과 각 집단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자 각 집단이 보이는 특징들을 파악함으로써 교수자는 학습자 특성에 따르는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강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 설계와 운영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각 집단별 특징을 종합하여 해석하고, 다음 장에서 이를 토대로 교수법과 강좌 운영 양 측면에서 각각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를 각 집단별로 구분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유형적 특징들로 귀납할 수 있다.

(1) 전공자 집단의 특징

- ①사전 학습 기간은 대체로 짧고, 자기 평가는 중간 또는 중간이하이다.
- ②수업의 난이도는 대체로 적당하다고 평가하며, 20명 이내의 수업을 선호한다.
- ③대부분 취업과 진로의 이유로 중국어를 선택하였다.
- ④희망하는 중한혼용 비율은 5(중):5(한)이다. 응용 및 연습이나 요점정리 영역에서 중국어 사용을 선호한다.
- ⑤대체로 반 내의 학생을 모두 수준별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를 선호한다.
- ⑥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주로 문법/어휘 설명과 연습문제에 불만이 있다.
- ⑦팁티칭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현행과 같이 2인의 교수자가 각

각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선호하다.

⑧과제는 [암송>단어>쓰기]의 순서로 학습 효율을 높게 평가한다.

(2) 비전공자 집단의 특징

①사전 학습 기간은 매우 다양하며, 자기 평가는 중간 또는 중간이하이다.

②수업의 난이도는 다소 높다고 평가하며, 20명 이내의 수업을 선호한다.

③중국어 실력 향상과 취업 및 진로의 목적 등 적극적인 목적으로 중국어를 선택하였다.

④희망하는 중한혼용 비율은 5(중):5(한)이다. 본문 설명과 문화 소개 부분에서 중국어 사용을 선호한다.

⑤대체로 사전 수준별 분반을 통하여 반 내에서 단일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선호한다.

⑥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주로 문법 및 어휘 설명과 난이도의 적절성에 불만이 있다. 문화관련 내용에 대한 보충을 희망하지 않는다.

⑦팀티칭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다. 2인의 교수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와 각각 다른 교재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모두 선호한다.

⑧과제는 [암송>쓰기>단어]의 순서로 학습 효율을 높게 평가한다.

(3) 장기체류자 집단의 특징

①사전 학습 기간은 대체로 길고, 자기 평가는 중간 또는 중간이상이다.

②수업의 난이도는 대체로 적당하거나 쉽다고 평가하며, 대체로 20명 이상 다수의 수업을 희망한다.

③학점 취득과 같은 소극적 목적으로 중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높으며, 수업에서 공인시험의 대비를 중시하는 인원이 일부 있었다.

④희망하는 중한혼용 비율은 6(중):4(한)이다. 중국어 사용을 선호하는 영역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⑤대체로 사전 수준별 분반을 통하여 반 내에서 단일 기준으로 평가받거나, 분반 작업 없이 반 내에서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선호한다.

⑥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주로 문법 및 어휘 설명과 난이도의 적절성에 불만이 있다.

⑦팀티칭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다. 2인의 교수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와

- 각각 다른 교재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모두 선호한다.
 ⑧과제는 [암송>쓰기>단어]의 순서로 학습 효율을 높게 평가한다.

아래는 각 집단에서 공동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환언하면 이는 교양중국어 과정의 설계 및 교수법의 선택 등의 문제에 있어 학습자 유형이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보편적인 수요라 할 수 있다.

(4) 공통의 특징

- ①수업을 통해 실전 회화 능력을 제고하기를 가장 희망한다.
- ②원어 강의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중한혼용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다.
- ③수업 중 한국어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영역은 문법 및 어휘 설명 부분이다.
- ④팀티칭에 대한 불만은 주로 불필요한 수업내용의 중복이다.
- ⑤교재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은 주로 부족한 문법 및 어휘의 설명 부분이다. 문화관련 내용의 보충은 그다지 희망하지 않는다.

물론, 이상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공자 집단과 비전공자 집단에서 소수의 수업을 선호하고,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선호 여부에도 나름의 시사점이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업 참여도와 동기화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장기체류자 집단에서의 상반되는 결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도와 동기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인의 사전 학습도와 강좌의 전반적인 난이도 사이의 부조화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평가방식에 있어 전공자 집단이 학급 내 수준별 평가를 선호하고, 장기체류자들은 학급 내 단일 기준에 의한 평가 방식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평가방식 자체에 대한 선호라기보다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교재의 난이도에 대해 비전공자 집단과

장기체류자 집단 모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양자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비전공자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점이 불만이지만, 장기체류자의 경우 난이도가 낮은 점이 불만이었다.⁵⁾ 또한 교재에 문화 관련 내용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만도가 낮다는 점은 학생들이 본 강좌를 통해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겠다는 의도가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은 교재에서 보충되어야 할 부분과 수업에서 별도의 한국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히 문법과 어휘의 설명 영역을 선택하였다. 또한 팀티칭에서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결국 문법과 어휘의 설명 부분에 중복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지정된 교재의 제한된 분량을 고려한다면 교수자 입장에서 내용상 불필요한 중복은 분명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교양중국어 강좌의 수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실질적인 회화 능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하지만, 동시에 부차적으로 각종 언어 현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수업과 교재에 함께 수반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2인의 교수자가 그 역할을 원만히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어수업과 팀티칭 체계를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설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교양중국어에 대한 수강생들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원어강의와 팀티칭 운영의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의 문제를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자와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수자의 수업설계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5) 이는 본 설문의 주관식 문항(20번 문항)의 응답에서 확인되었다.

첫째, 수강생 유형에 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비전공자들은 수업과 교재의 평균적인 난이도를 모두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장기체류자들은 수업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며 수업과 교재의 난이도 모두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제나 평가방식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전공자의 경우 사전 학습 경험이 없음에도 동기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많은 정보의 전달과 체계적인 고강도의 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 부여 및 평가 방식의 다양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들의 팀티칭에 대한 불만은 대개 내용의 중복에서 발생하였다. 반면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수업 전반에서 문법 및 어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2인의 교수자는 역할의 분담을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 하나의 문법사항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본 개념의 학습과 심화 학습과 응용으로 양분하는 방식과 같이 영역을 보다 세분화시켜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은 중국어 원어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어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으로 구두로 한국어 설명을 병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구두 설명은 중국어로 하되 인쇄물, PPT 등의 추가 자료는 한국어로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과제의 부여와 수시평가의 실시에 있어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지정 주제 발표나 인터뷰,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작 학생 스스로는 전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받아쓰기, 한자 쓰기, 암송하기 등의 전통적인 과제에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과제 부여의 방식과 수시평가의 비중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운영 주체의 과정 설계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 내 구성원의 질적 다양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학급 내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반면 각종 이유에 의해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학급당 인원수는 계속 증가의 추세에 있으며, 장기체류자들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양중국어 과정을 수준별로 분반하여 기학습자들을 분리하거나,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수업 혹은 교양중국어 이외의 교양과목을 확충하여 기학습자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도 반 내 구성된 간의 이질감을 줄이는데 아주 유효한 방안이다.

둘째, 교재를 다양화된 학습자 수요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교재에 대한 불만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화된 학습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만약 제도적으로 단일 교재를 공용으로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지정 교재는 오히려 기초적인 내용부터 추가 단어, 심화 문법 사항, 응용 연습, 참여형 과제 등 모든 범위를 망라해야 한다. 교수자는 수업 과정에서 이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 1년 과정의 지정 교재를 두 권의 시리즈로 분책하거나 연습용 워크북과 추가 연습 내용을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팀티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원만한 팀티칭 운영을 위해 교수자간 소통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 교재를 동일 진도로 진행되는 기본 설계에는 내용의 중복이 다소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과과정의 설계 단계에서 교수자 간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하거나, 교수자 각각의 교재를 지정하거나, 교재의 구성 자체를 역할 분담형으로 구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교양중국어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수법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여러 분석과 제안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제안은 학교 차원의 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적으로 다양화된 학생들의 수요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당면한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물론, 이상의 분석과 결과는 특정 학교의 강좌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중국어 강좌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교수자들의 성공 사례와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축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물론 필자가 본 장에서 제시한 대안들의 유효성도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를 기약한다.

< 參考文獻 >

- 강찬구,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국인문과학》 제63집, 2016.
- 구현아·장린·김영옥, <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교양 중국어>, 《중국인문과학》 제59집, 2014.
- 김선아, <대학교양 중국어 활성화를 위한 제요건>, 《인문학연구》 제47집, 2014.
-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46집, 2010.
- 류창교, <교양중국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아문화》 제36집, 2009.
- 손정애·황영희,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1호, 2016.
- 신경선, <이공계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43집, 2012.
- 이옥주, <멀티미디어와 중국어교육-교실 수업에서 활용되는 멀티미디어의 학습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연구>, 《中國語文學志》 第25輯, 2007.
- 장춘석, <교양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34집, 2006.
-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5집, 2005.
- 조득창, <교양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원어민 교원 운용 방안>, 《중국어문논총》 제36집, 2008.
- 한희창,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 학습자의 초급중국어 학습 실태 비교>, 《중국언어연구》 제57집, 2015.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실, 《새내기중국어(개정2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 Abstract >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chinese class as a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We conducted a survey among 88 students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Student quality variables are intimately related with purpose of choosing course, learning motivation, perceived difficulty, satisfaction of team teaching method, etc. Thus instructors need to develop different educ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student variables. During team teaching, co-teaching pair need more intimate relationship and more specific plan for dividing instructional content. Teaching grammar and vocabulary, students want for instructors to use their mother language, thus we propose to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 in mother language. We also propose university administrators make political solutions which can improve student variable problems in various areas such as curriculum development, teaching materials, co-teaching models, etc.

Key Words: Chinese Class as a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student variable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effects, student satisfac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10. 31.	2016. 12. 01.	2016. 12. 15.	2016. 12. 16.	2016. 12. 31.

